

법사학관련 신간 안내

◎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년 1월, 470면

저자가 10여 년 동안 한국근대법사에 대한 논문을 집성한 것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근대법의 형성과 전개에는 7개의 논문이, 제2부 식민지 법제의 형성과 전개에는 6개의 논문이, 제3부 서평에서는 3개의 서평이 수록되어 있으며, 참고자료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한국 근대법사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근래에 진행되었다. 본서는 일본의 침략과정을 통해서 한국근대사의 흐름을 짚고 이를 토대로 서구법의 수용과 근대법의 형성과정을 검토하였으며, 식민지법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본서는 한국근대법사 연구자에게 하나의 지침서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 김택민, 『중국고대 형법 -당제국의 형법 총칙-』, 아카넷, 2002년 1월, 717면

《唐律疏議》를 공동으로 역주한 필자가 총칙에 대한 해설서로 “대우학술총서 529”로 발간되었다.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설에서는 중국 형법전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십악과 신분제 등을 다루었고, 제2편 신분과 죄형에서는 신분범의 문제를 친속, 夫와 妻妾, 官人, 賤人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제3편 범죄에서는 구성요건, 정당화, 책임, 공범, 처벌 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제4편 형벌에서는 형의 면제·가감, 장물, 경합범, 특별처분, 형의 개정 등을 소개하였다. 《唐律疏議》는 단순히 중국 당의 형법전이라기보다는 동양 형법전의 모본인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전전 저자는 《唐律疏議》를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더욱 돋보이는 것은 법학자가 아닌 역사학자가 법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를 발간한 점이다. 서문에 따르면 공역자인 임대희 교수가 조만간 各則篇의 연구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는데, 자못 기대된다. 이

를 바탕으로 우리와 중국의 형법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나올 것이다.

- ◎ 시마다 마사오(도전정량) 지음/ 임대희·박원길·우덕찬·이광수 옮김, 『아시아법사』, 서경문화사, 2000년 5월 358면

일본에서도 아시아법사를 개관한 책으로 정평이 있는 저자의 『東洋法史』를 번역한 것으로 중국 법문화권, 북방유라시아 법문화권, 이슬람 법문화권, 힌두법문화권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결론에서 법제사의 의의와 세계법사에서 아시아법의 위상을 언급하였다. 아시아의 법과 법사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는 현재 이 번역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국법사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쓴 補論이 있어 유용하다.

- ◎ 김지수, 『절옥귀감 —고대 중국의 명판례—』, 소화, 2001년 11월, 576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동양고전 번역 지원으로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4”로 『折獄龜鑑 —고대 중국의 명판례—』이 발간되었다. 중국 宋의 鄭克이 편찬한 재판사례집으로, 五代 後晉의 和凝 父子가 편집한 《疑獄集》을 보완한 것으로 春秋戰國時代부터 北宋 徽宗(재위: 1101~1125) 때까지의 약 1,500년간의 명판결을 번역하고 이에 대해 역자가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명판결의 연원을 알 수 있으며, 한국법제사와 중국법제사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법제사와 한국법제사에 대한 비교법제사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

-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역, 『신보수교집록』 청년사, 2000년 9월 ; 『수교집록』, 청년사, 2001년 7월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에서 《受教輯錄》과 《新補受教輯錄》을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1698년(숙종 24)과 1743년(영조 19)경에 편찬된 법전으로 대전후속록 편찬 후의 각종 수교를 육전체제에 따라 분류·집성한 것이다. 이는 經國大典 체제에서 續大典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법령집이다. 원문을 校勘과 함께 수록하고 부록으로 관련 《大明律直解》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용어 및 인사관련 용어를 설명하였고, 형벌체계를 덧붙였다. 그리고 후속작업으로 《各司受教》도 번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法源史 연구 및 한국법제사 연구의 중요한 기

초작업으로 기대된다.

◎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法制史 관련자료 발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계속해서 奎章閣資料叢書 法典篇으로 조선시대 형사법의 일반법인 『大明律直解』, 『大明律講解』, 『大明律附例(2책)』(이상 해제 정공식[서울대 법대 교수]·조지만[서울대 법학연구소 조교])를 해제와 함께 발행하였다. 특히 『大明律講解』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책으로 실제로 재판에 활용된 대명률로 사료적 가치도 높지만, 종래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중국법의 수용과정과 형사법의 한국화 과정 등 한국형법사 연구에서 큰 공백을 매울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1899년 6월부터 1900년 12월까지 法部 檢査局과 刑事局에 접수된 訴狀과 請願書를 수록한 『法部訴狀』 제2권, 제3권이 발간되었다. 또 외교통상관계자료 13종 112책을 대상으로 하여 『奎章閣所藏通商關係資料 要約 3·4』를 간행하였다. 이 모두 근대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